

2020년 3월

5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김태환 : 봄과 함께 찾아온 5번째 호입니다. 이번호부터 새로운 시작이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은혜 : 재미있는 기사들이 가득한 차팜인의 2020년 첫 호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효정 : 즐거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열심히 제작한 5호입니다. 많은 정보 얻어서 즐거운 약대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전상원 :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 호도 재미있는 차팜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오윤정 : 봄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소식들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소중한 추억들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운 : 봄의 시작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약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태소정 : 새학기의 시작 차팜인 5호와 함께해요!! 그리고 다음 6호에 실릴 재밌는 추억을 쌓는 한학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성연 : 차팜인 5호와 함께 새학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약인의 추억을 소중히 모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지수 : 2020년의 첫 번째 호가 발간되었네요!! 차약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이현주 : 차팜인과 함께하는 차약이의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스펙타클하게 보내는 그들의 일상을 함께 봅시다~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김태환 (약학과 16), chapharmin@naver.com

편집위원/취재팀

김은혜 (약학과 16), 손효정 (약학과 17)

김태환 (약학과 16), 박지수 (약학과 17)

전상원 (약학과 16), 이현주 (약학과 17)

김성연 (약학과 16), 태소정 (약학과 16), 오윤정 (약학과 17)

정영운 (약학과 16)

발행회차

2020년 5호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취재]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03

송우미식회

04

[취재] 입센코리아 대표 특강

05

영화추천 차튼토마토

06

[기고] 독서감상문

07

나의 여행일지 - 피렌체

08

팜파라치

09

USC에 가다

10

[인터뷰] 재학생의 방학생활

11

차약 앙케이트

12

[취재] 제4회 차팜데이



Goodbye 포천, Welcome 실습지

실습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 약사들

2019년 11월 29일, 차의과학대학교 현암기념관에서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학대학 교수들과 내외빈들이 참여하였다.

행사는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서 본교 서재원 부총장과 외빈들이 예비 약사들을 위해 축하와 조언을 이어갔다.

축사가 끝나고 행사의 정수인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진행되었다. 선서에 앞서 약학대학 교수들은 학생 한 명 한 명 새하얀 가운을 직접 입혀 주었다. 모든 학생이 가운을 입자 재학생 대표로 15학번 김정현, 박성민 학우가 무대로 올라오고 선서가 진행되었다. 재학생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약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며 선서에 임했다.

선서가 끝나고 15학번 재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동영상 상영되었다. 영상은 유명 광고 패러디를 시작으로 재학생 한 명 한 명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패러디를 한 장면에선 특유의 익살스러움 때문에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웠다. 그러는 한편, 학생들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에선 재학생들이 지난날의 우수에 젖어 장내가 조용해지기도 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잘 살렸기에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영상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공감을 하였다.

영상 상영이 끝나고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에는 3학년, 4학년 재학생이 다수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감상했고, 연주가 끝날 때면 박수갈채를 보냈다.



가운을 입은 5학번 학생들의 단체사진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끝나고 후배 재학생과 실습생의 부모님들은 실습생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전하고 사진을 찍었다.

인터뷰 (15학번 이희다 학우)

Q. 후배들이 실습지 선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습지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팀이 있다면?

5학년 2학기 중에 엑셀 파일로 실습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파일을 보고 각자 어느 사이트에 지원할 것인지 설문지를 제출한 후, 5-1까지의 성적과

1학기 약물치료학 성적을 1:1 비율로 평균을 내어 성적순으로 사이트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이트에 T.O가 3명인데, 5명이 지원했다면, 성적순으로 2명은 탈락합니다. 학교 특성상 열리는 사이트가 다양한 만큼, 13 ~ 15지망까지 지원을 하는데, 1지망에서 떨어지면 바로 15지망으로 배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1지망이 떨어지면 바로 15지망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성적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적이 높아야 가고 싶은 실습지에 차질 없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눈치싸움에 이긴다면, 운이 좋게 원하는 사이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는 만큼 해마다 실습지 사이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말을 듣고 지원을 하려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전년의 실습사이트와 시기는 알고 계시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실습지가 확정되었다 해도 갑자기 실습지가 바뀌거나 지원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상원 기자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송우미식회

샐터솔뚜껍삼겹살

대표메뉴: 삼겹살



전화번호 : 031-541-6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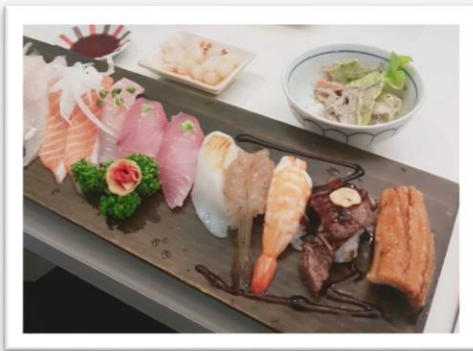
맛집 별점 : ★★★★★

배달 여부 : 배달x / 포장x

한국인이면 제발 샐터솔뚜껍삼겹살 갑시다. 여긴 김치 구워서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게 너무 맛있어요. 김치의 신맛과 고기의 식감이 더해지면... 밥 두 공기는 똑딱이랍니다. 된장찌개랑 나머지 밑반찬도 다 너무 맛있어요.

스시마리

대표메뉴: 평일점심특선, 모듬초밥(10), 회덮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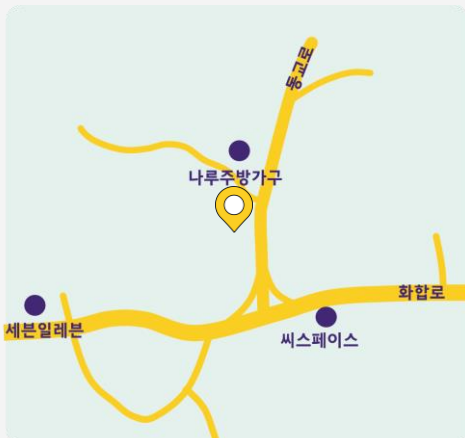
전화번호: 031-543-3689

맛집 별점: ★★★★★

배달 여부: 배달X, 포장O

두툽한 초밥 하나 집어서 간장에 콕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유?
멀리 서울 맛집에 줄 서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천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초밥의 생명인 통통한 회의 식감은 입을 즐겁게 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는 눈을 즐겁게 합니다.

오늘 하루 기분전환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방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상원, 이현주 기자



차판人이 만난 사람

입센코리아 김민영 대표 특강

<입센 코리아 김민영 대표 소개>

김민영 대표이사 사장(이하 대표)은 서울대학교 약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부광약품과 서울대병원, IMS 헬스 코리아, 한국 릴리, 입센 코리아에서 근무하였다. 30년간 마켓 리서치, 마케팅, 영업, 약가 업무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마케팅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입센 코리아의 general manager로 일하고 있다.

2019년 6월 14일, 차 의과학대학교에서 약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김민영 입센 코리아 대표의 특강 '제약회사에서 약사의 역할'이 있었다. 김민영 대표가 국내외 제약회사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김민영 대표는 제약회사에 두루 포진된 약사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였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제약회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약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의약품 개발과 개발 이후 국내외에서 개발된 의약품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는 일이 그 두 가지다. 그중 의약품 개발 이후의 일은 다시 커머셜과 메디컬, 두 갈래로 나뉜다. 커머셜 영역에서는 영업과 마케팅, 시장 조사, 약가, 보험 급여, 홍보 등 비즈니스 일을 맡는다. 메디컬 영역에서는 허가과 품질 평가, 임상, 유해 사례 보고, 학술연구 등의 일을 맡아 허가 및 학술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제약회사 내에서 약사의 역할이 다양하므로 제약회사에 뜻이 있는 약학과 학생이라면 인턴이나 실습 등으로 다양한 부서에 대해 접근을 해볼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

김민영 대표는 제약회사에 뜻이 있는 약학도에게 초심자로서 배우려는 자세, 성실성, 팀워크를 강조하였다.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면 무엇이든지 새로 배워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때 사내에서 만나는 다양한 전공 출신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배움을 얻고 경험을 쌓아가며 장래에 어떠한 커리어를 쌓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볼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성실함과 팀워크를 갖춘 인재를 회사에서 선호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추가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과 더불어 나의 잠재성을 깨닫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해볼 것을 권장하였다.

“제약회사 또한 영리 회사이고 비즈니스 회사이지만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자사의 의약품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느껴진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중 고난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기쁨 또한 존재한다. 김민영 대표는 강연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약회사 일은 어렵다. 하지만 쉬운 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그 상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될 수도, 심사평가원이 될 수도, 혹은 의사들이 될 수도 있다. 나와 내가 속한 제약회사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을 다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다 견뎌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람과 재미있는 기억도 많이 남게 되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특강에 집중하고 있는 약학과 학생들

CHAtten Tomat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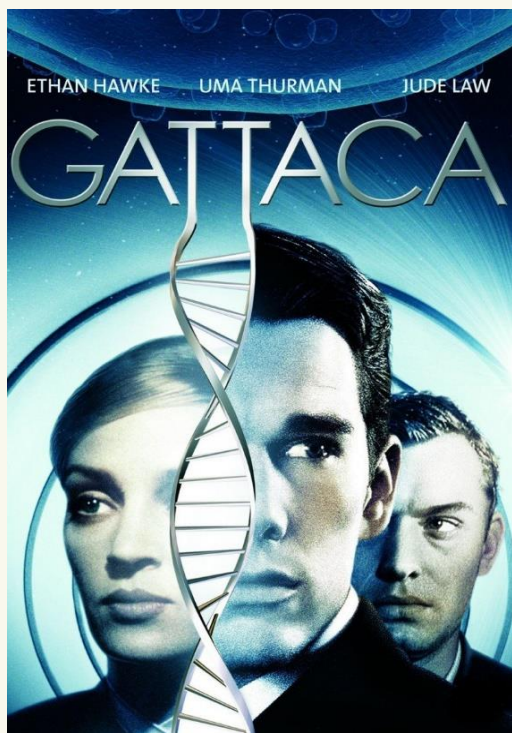
디스토피아 관련 고전 영화 추천

디스토피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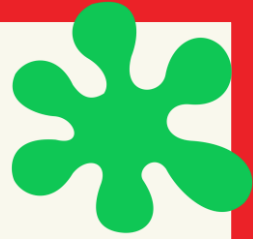
역(逆)유토피아라고도 한다. 디스토피아는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을 말한다. 주로 전체주의적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 받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디스토피아 세계관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와는 달리 문명이 존재하며 인류도 멸망하지 않았다. 또한, 현대인이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위험을 명확히 지적하며, 현대사회 인간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게 한다.

1 가타카(1997)

'하느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느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는가?'



우수한 유전자만을 선별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주인공 빈센트는 자연임신으로 태어나 열성인자를 지닌 인간으로 차별받으며 살아간다.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동생과 늘 비교당하며 성장했고, 우주 비행사의 꿈을 꾸었지만 번번이 유전자 면접에서 떨어진다. 늘 지기만 했던 동생과의 수영시합에서 처음으로 이긴 날, 그는 집을 떠난다. 그 후 우성인자지만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은 유진을 만나게 되고 그의 유전자증명을 이용해 우주항공회사 가타카에 입사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투를 보며 주인공의 시점과 감정을 잘 따라가도록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한 믿음에 비판적인 시각을 던지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연의 섭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화.



매트릭스(1999)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영화 속에서 인류는 기계에 의해 잉태되고 생산되며, 평생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허구의 세계를 자각하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들은 예언에 따라 자신들과 인류의 마지막 도시인 시온을 구원할 그(The One)를 찾는다. 영화의 주인공 네오는 시스템을 자각하고 깨어나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그 안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해 나간다.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임 없이 빨간 약을 선택했던 네오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주체적 결정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이퀄리브리엄(2002)

'숨쉬는 건 시젯바늘이 내는 소리와 같을 뿐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난 후, 살아남은 자들은 인간의 감정과 번덕스러움이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 리브리아에서는 모든 국민이 프로지움이라는 약물에 의해 통제되고, 사랑, 행복, 증오 등의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주인공은 프로지움 투약을 거부하는 반체제 인물들을 색출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책과 미술, 음악 등의 금지자료를 모두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친했던 동료의 자살을 목도하고 프라지움 투약을 중단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강렬한 감정과, 사회의 존속과 분쟁의 종결이라는 대의사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보며, 전체주의와 그 속의 개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게 된다. 인간의 감정을 통제한다면, 분쟁은 사라지는가? 단지 숨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갖는가? 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오윤정 기자

독서감상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행복

〈행복의 기원〉 서은국 저, 2014

‘잠, 돈, 맛있는 음식, 친구와 가족.’

교수님께서 주신 새하얀 백지에 큼지막하게 다섯 단어를 써넣었다. 이는 행복배움 교양 수업 시간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다섯 가지’를 적은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떠올리는 데에는 십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도 함께 적어보라는 교수님의 요구에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왜 잠을 자는 것에 행복한가? 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탓에 좀처럼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냥’이라는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몇 줄 적어 제출해버렸다.

우리는 확실히 행복에 관심이 많다. 서점에 가면 다양한 행복 지침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켜면 행복전도사가 나와서 행복해지는 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동화의 마지막은 으레 주인공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을 맺는다. 또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 반면에 행복을 왜 느끼는지,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법을 찾기 이전에 그 행복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기에 위 다섯 단어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행복의 기원을 찾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책에서 주장하는 행복의 기원은 바로 유전자였다. 행복과 유전자. 너무도 이질적인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뒤이은 설명에 이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행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유전자에 프로그래밍이 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자연 선택설에 대해 배운적이

있다. 그중 목이 긴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따먹을 수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은 잎을 따먹지 못해 개체수가 줄어 결과적으로 현재는 목이 긴 기린만이 살아남았다는 설은 대다수가 알 것이다. 여기서 기린의 목 길이는 행복이라 할 수 있다. 행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도태되고 행복을 많이, 자주 느낄 수 있는 인간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우리들은 허기진 배를 맛난 음식으로 채울 때, 며칠 밤을 새우다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을 할 때 매우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만약 이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굶어 죽거나, 과로로 죽거나, 육신은 죽진 않더라도 후손을 남기지 못해 유전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행복이 곧 생존의 원동력이므로 인간은 이를 느끼게 되어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단번에 납득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교양 시간에 종이에 적어 냈던 다섯 단어 중 잠과 맛있는 음식에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친구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왜 행복을 느끼는가? 이도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책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허허벌판에 홀로 있으면 금방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여럿이 모여 있다면 그 맹수를 사냥하여 잡아먹을 수도 있고 벌판을 경작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타인과 함께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 역시 생존이었다. 하지만 곧 커다란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까지 행한다. 그 때문에 혹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해버리기도 한다. 그래도 저자는 인간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물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받고 고통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행복이란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 평온함을 넘어 아드레날린이 마구 뿜어져 나오는 매우 기쁜 상태이다. 즉, 사람에게 의해 고통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행복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학창 시절, 친구와 싸워 학교에 가기 싫었어도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눌 생각에 얼른 학교에 가고 싶어지기도 했다. 삶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사람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가도 사람 때문에 내일 아침 눈 뜰 힘을 얻는다. 실제 연구로도 타인에게 관심이 많으며 그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즉,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커다란 의문이 잠시 고개를 들었으나 결론적으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이유 역시 '생존'으로 설명할 수 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돈은 어떨까? 자본주의인 현대 사회에서 돈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는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생존을 위한 것이니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결론을 내려도 될 것인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연구가 가진 돈의 액수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다. 물론 돈이 전혀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 생존에 위협을 받는 정도라면 말이다. 바꿔 말하면 생존에 지장만 없을 정도의 돈만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돈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와 소득수준 순위가 같지 않은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생존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매력으로 본다면 어떨까? 저자는 그림 그리기, 춤추기 등 생존과 전혀 관련 없는 활동을 할 때도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이는 공작새의 꼬리를 통해 설명되었다. 공작새의 꼬리는 크고 눈에 잘 띄어서 생존에는 매우 불리한 요소이지만 짝짓기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큰 꼬리를 가진 공작새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림 그리기, 춤추기 역시 공작새의 꼬리처럼 생존에는 불필요할 지라도 이성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돈은 생존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재력은 하나의 능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이성에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돈을 많이 가질수록 인간은 행복할 것이다. 따라서 생존에 지장 없을 정도의 돈만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돈과 큰 관련이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돈을 매력 요소로써 충분히 고려해 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돈이 생존 수단이든 매력 요소이든 소유했을 때 행복한 이유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 책 한 권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적어 낸 '나를 행복하게 하는 다섯 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책을 덮고 이내 드는 생각은 '어쩌면 처음에 이유를 적어내지 못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다.'이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 유전자가 뇌에 행복을 느끼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유전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를 따를 뿐이다. 평소에 우린 서로에게 왜 이족보행을 하는지 묻지 않는다. 그렇게 진화해왔고 그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행복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행복한 이유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의 이유도 모른 채로 살아가라고 하고 싶진 않다. 이 책을 통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된 사람이라면 찾아오는 행복을 의심하지 않고 다음 행복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행복의 기원에 대해 고민해보고 알아봄으로써 내일 아침 눈 뜨는 것을 기대하게 되길 바란다. 행복은 곧 생존이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므로.



르네상스의 상징 이탈리아 피렌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에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은 아오이와 준세이가 아오이의 서른 번째 생일을 함께하기로 한 장소이다. 그 약속으로 인해 헤어진 연인은 피렌체에서 재회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에, 오래된 연인과 함께하기에 피렌체의 야경은 더 아름답다.

피렌체의 교통

피렌체로 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비행기로 피렌체 공항에 도착하는 방법과 로마에서 ‘italo’라는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가는 방법이다. 피렌체를 구경할 때는 전차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걸어 다닌다.

TIP

① 이탈리아 도시 간의 이동에는 ‘italo’열차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자주 연착되기 때문에 ‘italo’ 애플리케이션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소수의 유럽국가만 여행할 경우 나라 간의 이동에는 ‘유레일 패스’보다 ‘FLIXBUS’의 가성비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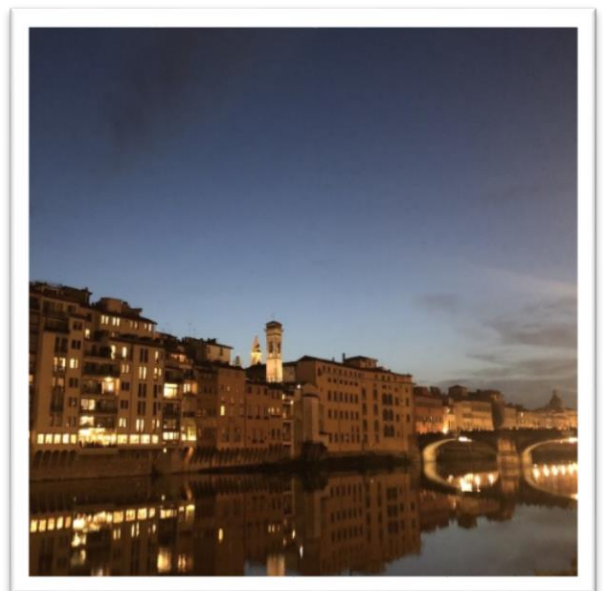


두오모의 측면과 통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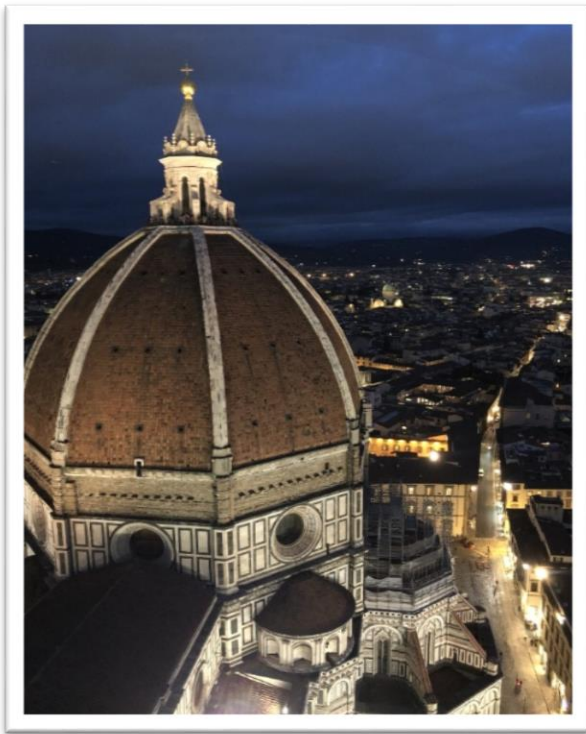
피렌체의 관광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두오모 성당은 피렌체의 상징이자 피렌체의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명소이다. 미켈란젤로, 산 조바니 등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의 진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두오모 성당의 쿠폴라에 올라가면 높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성당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쿠폴라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붉은 피렌체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베키오 다리와 미켈란젤로 언덕은 석양과 야경의 장소이다. 베키오 다리는 아르노강 위에 놓인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이다. 아르노강 위로 지는 아름다운 피렌체의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베키오 다리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미켈란젤로 언덕을 올라가면 피렌체 전체의 야경을 볼 수 있다.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바라보는 두오모 성당은 낮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베키오 다리 야경



종탑에서 본 두오모 성당

TIP

① 두오모 성당은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다. 두오모의 쿠폰과 종탑을 방문할 경우, 방문 일주일 전부터 미리 통합권을 사서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한다. 필자는 예약을 뒤늦게 해서 일주일 후 피렌체를 다시 갔다. 유럽 대부분의 유명 관광지는 예약을 해야 한다.

② 미켈란젤로 언덕을 올라가는 길은 어렵기 때문에 손전등을 챙겨야 한다.

TIP

이탈리아 화덕 피자의 전통
“simbiosi”
(풍기 피자를 꼭 먹어야 한다.)

이탈리아 생면 파스타 맛집
“La Primeria”
(가격이 저렴하다.)

피렌체의 맛집

피렌체는 미식의 도시이다. 이탈리아는 젤라또로 유명한데 피렌체 또한 젤라또 맛집이 많다. 가족의 도시인 피렌체의 명성에 맞게 소 요리인 T-bone steak 맛집이 많다. 엄청난 두께의 티본 스테이크는 소금에 찍어 먹을 때 그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현지인들은 주로 스테이크를 매쉬포테이토와 함께 즐겨 먹는다. 이 지역의 로컬 와인과 함께 먹으면 맛이 2배가 된다.



“Gelateria della pass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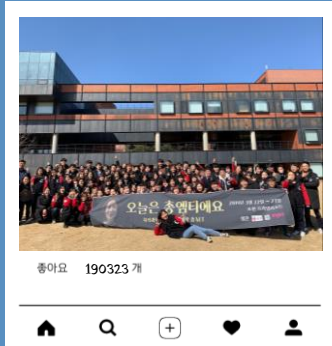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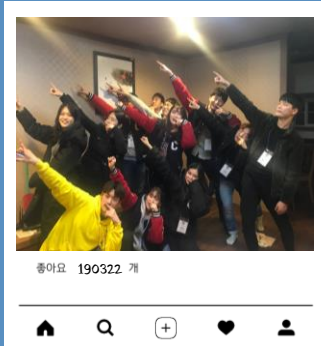
숨겨진 보석 같은 젤라또 맛집
(피스타치오 맛을 강추! 가성비가 좋다.)



“IL Paiolo”

두툽한 티본 스테이크 맛집
(두 번 갔다. 인생 최고 스테이크였다.)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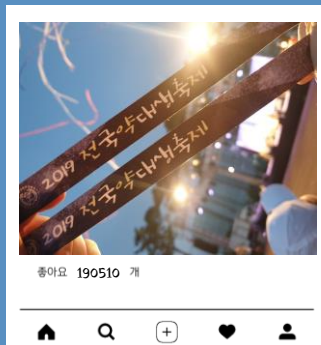


약학과 총애티 (3월)

전 학년이 함께 모여 간 첫 애티! 팀별로 모여 방마다 돌며 게임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들 상품에 눈이 멀어 잊지 못할 추억사를 많이 생성했다고 하네요..ㅎㅎ 교수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한 해의 첫 행사가 더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체육대회 (3월)

경기 북부 약학대학들이 모여 힘을 합쳤던 체육대회. 대회에 참가했던 학우들 모두 예선부터 본선까지 최선을 다해주었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찾아와준 동기들과 선배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체육 대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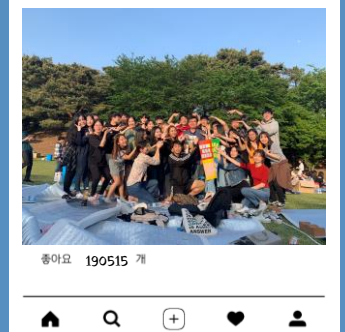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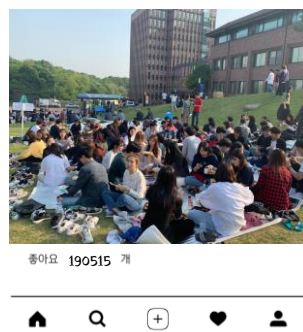


전약제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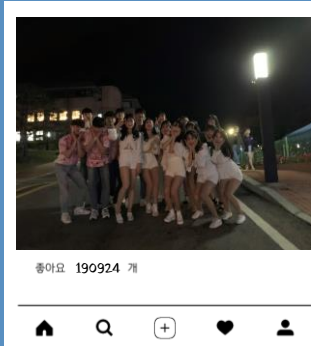
약학인이라면 누구나 고대하고 기대했던 전약제! 다양한 부스와 공연, 먹거리들이 가득했던 전약제에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계주에 출전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죠. 밤새 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에서 잠깐씩 즐기기도 하고, 체육관에 마련된 수면실에서 잠시 기절도 했다가 동기들과 수도도 떨며 전약제를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해솔마당축제 (5월)

날이 아주아주 좋았던 해솔마당축제날! 학과별로 해솔마당에 모여 앉아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공연도 즐기며 시험 기간 사이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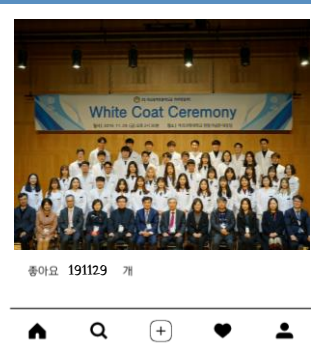


학교 축제 (9월)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우리 학교 축제. 낮에는 다양한 학과에서 연 부스에도 참가하고 푸드트럭에서 음식도 사 먹으며 가을을 마음껏 즐기고, 저녁에 이어진 공연에서는 약학과 댄스동아리인 요약정리의 멋진 무대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연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응원하면서 좋은 추억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팜데이 (9월)

약학과의 큰 행사 중 하나인 차팜데이 날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학생들이 모여 공연도 보고, 서로의 근황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팜데이의 하이라이트는 경품추첨이죠! 올해 아이패드의 행운은 모두 3학년이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 (11월)

3년간의 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단상에 선 5학년 선배들의 날. 모두 함께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도 하고 졸업을 앞둔 선배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남아있는 실습기간 무사히 보내고 약기도 통과해 멋진 약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차약 10인, USC에 가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6월 말, 기자 본인을 포함, 10명의 차약 학우들-17학번 김동준, 신송이, 장미래, 홍정택, 16학번 윤성원, 정영운, 정유정, 홍혜린, 14학번 오주원-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하 USC)에서 주최한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이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주간의 기록이다.

I .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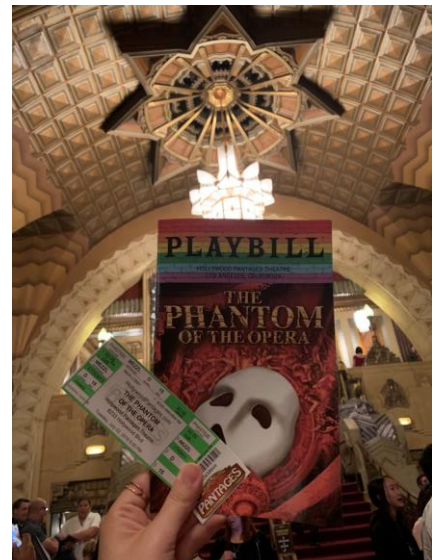
학생의 본분은 모름지기 공부가 아니겠는가!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 점은 다르지 않았다. Rory Kim, Ian Haworth 두 교수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2주간 당뇨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Ian 교수님께서 화학적 측면에서 약물의 구조, 타겟과의 상호작용, 구조적 변형을 통한 약효의 개선 등에 대해 강의해주셨다면 Rory 교수님은 임상적 측면에서 약물을 통한 치료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셨다. 두 분 모두 답을 알려주기 전 꼭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각자 독특한 방법으로 답을 받아

내셨다. Rory 교수님은 실시간 투표 프로그램을 사용해 객관식 답을 고르게 하셨다. 익명으로 진행되고 모두 함께 대답하는 것이기에 학생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어 답변율이 높고 반 전체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Ian 교수님은 주사위 모양의 쿠션을 교실 이곳저곳으로 던지셨다. 주사위 안에는 마이크가 들어있어 주사위를 받은 사람은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날으는 주사위'는 수업 중간중간 적절한 긴장감과 재미를 제공했다.

USC 프로그램에는 한국 학생들 외에도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각자 그룹으로 나뉘어 조 활동을 수행했다. 각기 당뇨병을 하나씩 배당받아 약의 역사, 기전, 부작용 등을 조사했다. 조 활동을 하는 동안 과제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 약대생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각자 나라에서의 약사의 역할, 약학 업계의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해볼 기회가 되었다.



II . Play



LA에서 우리가 공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친목과 재미를 위한 일정도 프로그램 중간중간 준비되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뮤지컬 관람이었다. 우리가 감상한 작품은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오페라의 유령'이었다. 장소는 할리우드 거리에 위치한 'Pantages Theater'였다. 반짝이는



상들리에와 고풍스러운 건물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고 팬텀 역을 맡은 배우의 카리스마도 대단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는데, 분명 영어는 영어인데 웅웅 울리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눈치와 사전 지식으로 무슨 내용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었지만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했나, 하고 아주 살짝 우울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프로그램 총괄자 마이클 커티스 씨가 아침 인사를 하며 ‘어제 뮤지컬 재미있게 잘 봤니?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하고 말씀하셔서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 다독일 수 있었다.



두 번째 일정은 LA 다저스 야구 경기 관람이었다. 집에서 다저스의 경기를 보는 것만도 신나는 일이지만 이 경험이 조금 더 특별했던 이유는 경기 날짜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독립기념일이었고 류현진 선수가 경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나는 야구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축제처럼

들뜬 분위기와 타국에서 만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나 응원을 했다.

III. Site Visit

USC 프로그램에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 약사들의 일터를 방문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아볼 기회도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USC 병원 약국, CVS(미국의 약국 체인), El Monte 약국이다.



병원은 타 의료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며 일하는 곳이다. 미국 약사는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질 수 있고 한국 약사보다 조금 더 직능의 범위가 넓다. 병원 약사들은 일부 처방에도 관여할 수 있으며 팀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어 의사, 간호사, 약사, 식단관리사까지 여러 전문가가 한 팀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CVS와 El Monte는 지역 약국이었는데 전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국에 좀 더 가깝고 El Monte는 생약에 특화된 약국이다. 지역 약국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Over the counter(OTC) 약의 범위가 넓은 것과 리필 제도였다. OTC 약의 범위가 넓은 것과 리필 제도는 의사를 만나기 힘든 미국 의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대신 미국은 OTC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Over the counter와 Restricted over the counter 약으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 약사의 상담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어두었다. 또한 약 리필은 제한적인 횟수에 한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처방이 크게 변하지 않는 만성 질환 환자에게 편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2주는 무언가를 배우고 체험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충실하고 촘촘한 프로그램, 열정적인 교수님들, 함께한 파이팅 넘치는 차약인들 덕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부족한 필력과 한정된 분량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글이 USC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앞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차약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영운 기자

재학생 인터뷰

차약이들은 방학에도 계획이 다 있구나?

약학연구입문을 통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17학번 한승훈 학우



Q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선배, 동기,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동계 약학연구입문(이하 약연입)을 조유희교수님 연구실에서 보내고 온 약학과 17학번 한승훈입니다!

Q2) 약대생이 되고 나서 첫 겨울방학을 보내고 계시는데, 방학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A2) 한 달 동안의 약연입을 마치고 부족했던 잠을 채우는 나날로 방학을 보내고 있어요.

Q3) 조유희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A3) 크게 파지팀과 항생제팀, 두 팀으로 나누어지는데 파지를 이용하여 세포의 특정 메커니즘의 규명하는 일이나, 새로

운 항생물질을 찾아 항생제를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4) 다양한 연구실 중에서도 미생물연구실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A4) 학부생들에게 미생물연구실로 불리는 '바이오항생제연구실'은 정말 배우는 것이 많고 직접 실험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미생물학을 배우면서 흥미도 느끼기도 하였고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기에 약연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그만큼 체력과 열정이 되는 분에게 추천해 드려요.

Q5) 다음 방학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A5) 아직은 겨울방학이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에 천천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 방학과 마찬가지로 방학의 절반은 바쁘게 살고 절반은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약회사 '한독'에서
미래를 그려보는
16학번 이영미 학우

Q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16학번 이영미입니다.

Q2)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마지막 해라고 알고 있어요. 방학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A2) 벌써 포천에서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네요. 저는 평일에는 한독에서 동계인턴십을 함과 동시에 주말에는 아XX빈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물론 틈틈이 동기 및 친구들도 만나면서 지내고 있어요^^

Q3) 회사와 본인의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A3) 저는 한독의 여러 부서 중에서도 'ETC 마케팅팀'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있는 곳은 희귀 의약품을



VALUE:
"Achievement"
"Innovation"
"Partnership"
"Quality"



재학생 인터뷰

차약이들은 방학에도 계획이 다 있구나?

마케팅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환 및 의약품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한 brochure 제작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요.

Q4) 지원하신 계기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A4) 졸업 후 제약회사를 가고 싶어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인턴십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저곳 모집 공고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한독의 경우에는 학과 공지사항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저희는 학과 사무실을 통해 안내가 오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서 역시 양현지 조교님께서 취합을 하여 한독 인사팀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서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했는데 하계 인턴십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학과 소식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Q5) 인턴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5) 논문 읽는 능력이요! 저뿐만 아니라 마케팅 부서에 있는 대부분 인턴 동기들도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당장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니 평소에 논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Q6) 다음 방학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A6) 다음 방학은 실습이 있어 여윌지는 않겠지만, 졸업여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동기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이외의 시간에는 아XX빈 알바를 하며 고3 막내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ㅠㅠ 물론... 그 옆에 함께할 누군가가 생긴다면 더 좋겠지만요? ㅎㅎ

예비 약사로서 지역약국에서 실습 중인 15학번 임경진 학우

A1) 안녕하세요. 15학번 임경진입니다.

Q2) 올해 1월부터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습지와 업무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A2) 저는 서현역 부근에 있는 지역약국에서 실습 중입니다. 업무는 주로 복약 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처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재생병원 등이 있어 수업 시간에 배운 모든 종류의 약들을 볼 수 있습니다.

Q3) 실습지에서의 일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A3) 제가 실습 중인 약국은 조제보다 투약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이면서 환자가 떠나가기 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처방 검수, 조제 검수, 복약상담을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주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등 테마를 정해 복약상담을 하고 있고, 매일 실습일지를 작성한 후 퇴근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복약 상담을 해 드렸던 환자분들의 케이스로 SOAP 과제를 하고 있어요. 업무나 과제 등은 약국마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Q4) 앞으로의 실습 일정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A4) 8월말까지 약국 두 곳(10주), 병원 한 곳(10주), 연구실 두 곳(10주)에서 실습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은 총 6주 정도 되네요.

Q5)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실습을 응원하겠습니다!

A5) 네. 감사합니다^_^

차약 앙케이트



1. 10년 후 차팜데이에서 졸업생 연사로 강연할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49.9%

10년 뒤에 차팜데이의
졸업생 연사로 설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17 한승훈



34.4%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16 이영미



54.5%

부족하지만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15 홍선기



2. 미혼인 동기 중, 결혼을 가장 빨리 할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63.6%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간다던데요~? 저는
늦게 가지 않을까요?^^

17 최수빈



68.8%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ㅎㅎ

16 이상민



27.3%

학생은 3만원, 약사는
5만원으로 축의금 딱
정하겠습니다! 팡팡!!

15 최동현



3. 기숙사(or 자취방)이 가장 깔끔할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36.3%

하...
요즘은 아닙니다 ㅠㅠ

17 박지수



32.2%

샤워 안하고
침대 올라갔어?!

16 조영준



18.2%

실습하면서 자취방
꾸미는데 맛 들렸어요.
인테리어용품 사는 데만
40만원은 투자한듯 해요.

15 오해준



4. 첫인상과 지금의 모습이 가장 다른 동기는 누구인가요?



27.2%

그렇군요 ㅊㅊ
입을 다물어야
하나봐요 ㅎㅎ

17 홍정택



20.5%

첫인상과 많이
다르나요?
헤헤

16 박희정



18.2%

첫인상에 비해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고, 좋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ㅎㅎ

15 박성민

박지수 기자

차대 약학과 모두와 함께한 제4회 차팜데이



2019년 9월 27일, 제 4회 차팜데이가 본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차팜데이는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들을 포함한 약학과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약학과의 연례 대표 행사이다.



개회 전 차우라홀에서 학술 포스터 발표 시간이 있었다. 총 19개의 포스터가 출품되었고, 재학생들은 교수의 지도하에 완성한 연구 결과물들을 다른 학우들과 교수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암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결과 발표 시간에는 윤성원(16) 학우와 정유정(16) 학우가 글로벌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였던 USC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글로벌 인턴 결과 발표 시간에는 송일랑(15) 학우와 이영미(16) 학우가 글로벌 보건약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졸업생 진로특강에는 한국팜비오 재직 중인 정성운(11) 약사와 조혜영 교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중인 최고운(12) 약사가 연사로 나섰다. 두 졸업생은 강연과 Q&A 시간을 통해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과 정보를 주었다. 김나현(16) 학우는 “작년에 이어 대학원 및 제약회사 등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팁을 들어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다양한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특강을 들은 소감을 말했다. 진로특강 후에는 행사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해 준 동아리 축하 공연이 있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차 오케스트라>, 밴드 동아리인 <민트밴드> 그리고 춤 동아리인 <요약정리>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저녁 식사 전 해솔마당에서는 OX 퀴즈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1등을 가린 문제는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는 부부다.”로 유영운

(16) 학우만이 정답인 0를 선택하여 1등을 차지하였다.



학생회관에서는 선후배와 교수들이 함께 만찬을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을 무렵 대망의 우수포스터 시상과 경품 추첨이 시작되었다. 출품된 19개 포스터 중 영광의 최우수상은 김지수(16)·윤성원(16)·이유진(16)·한은채(16) 학우의 <OSOC : 영유아를 위한 Automatic Liquid Drug Dispenser>이었다. 윤성원(16)학우는 “기기분석 팀플에서 했던 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경품 또한 꾸집했다. 1등 경품인 아이패드 2대를 포함하여 제주도 항공권, 호텔 상품권 등 많은 상품들이 있었고, 그 중 아이패드는 고준영(17) 학우와 김성미(17) 학우에게 각각 안겨졌다. 즐거웠던 하루의 추억을 되돌아보니 벌써부터 제 5회 차팜데이가 기다려지는 밤이다.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5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의과학 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농협 351-0013-3604-63 (예금주: 전상원)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7143-5568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위원 김태환
chapharmin@naver.com / 010-7143-5568